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8/27	8/28	8/29	8/30	8/31	9/1	9/2
렘 16-18	렘 19-21	렘 22-24	렘 25-27	렘 28-30	렘 31-32	렘 33-35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됨"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왔을 때부터,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후손 중에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는 특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유지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자신들을 성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을 예로 들며, 유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것을 권했습니다(렘 35).

카넬라 사람들의 입양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열방 입양에 대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잭과 조 팝치스 선교사가 카넬라 사람들과 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브라질 정부는 그들이 카넬라 마을에 살며 일할 수 있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잭 선교사 가족은 마을에서 800km 떨어진 SIL 본부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문해사역 자료와 이미 번역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마을에 전하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잭에게 문해사역 자료만 배부하고 성경은 배부할 수 없다는 문서에 서명하게 했지만 잭은 문해사역 자료와 성경을 각기 다른 두 통에 따로 따로 넣어 가져 갔습니다.

카넬라 사람들은 두 통 중에 하나만 여는 걸 보고

다른 통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잭이 상황을 설명하자 마을 원로들은 밤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잭은 기도했습니다. 아침 일찍 추장이 잭에게 와서 두 통을 다 챙겨서 마을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35 km 지점에 있는 검문소 밖에 두 통을 놓고 가면, 추장의 아들이 가서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카넬라 지경 밖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합의사항을 어기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사역을 돕던 카넬라 번역자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잭 선교사 가족을 찾아 왔습니다. 야코는 거의 일 주일 동안, 걷고, 쌀 수송 트럭을 얻어 타고, 버스를 타고, 다시 걸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잭은 야코에게 음식을 먹이고 카넬라 마을 소식도 듣고 나서, 혹시 온 김에 카넬라 성경번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야코가 좋다고 했고 그들은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잭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는데, 야코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잭은 너무 기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역 10년 만에 처음으로 카넬라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았고, 또 그들 중에 신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기도 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야코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던 중 마음 속에 언제가 되어야 읽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는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아버지시여, 제가 이 종이에서 읽은 것들을 보면, 아버지는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발 좀 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절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입양해) 주셨습니다." 야코는 카넬라 사람들이 팝치스 선교사 가족을 맞아들이고 그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을 때 사용한 카넬라 말을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

3년 동안 카넬라 마을에는 선교사도 없었고, 순회 설교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카넬라로 번역된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 (pp.69-71, *A Kick in the Pants*, by Jo & Jack Popjes)

더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주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니 감사드려요! 아직도 집나가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여러 민족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도 그 안타까운 마음 품고, 그들의 언어로 주님 말씀 전해지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을 반가이 맞을 수 있도록 오늘도 또 헌신하게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Adopted into God's Family"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The Kenizites were adopted into God's family when Moses' father-in-law joined the Israelite people on their journey to the promised land. Among their descendants, the Rechabites showed their zeal to worship God by separating themselves from wine while keeping their nomadic life style. Jeremiah commended them for their faithfulness and, using them as an example, tried to persuade Judah to obey God's Word. (Jeremiah 35:1-19)

The Canela people's story of adoption tells us one good example of how powerful God's Word and His adoption of nations can be.

About 10 years after Jack and Jo Popjes' ministry with the Canela people, the Brazilian government cancelled the document permitting the Popjes to live and work among the Canela people. The Popjes had to withdraw to the SIL base, 800 km away from the village. But Jack tried to deliver literacy material and the translated Bible portions, Luke

Aug 27	Aug 28	Aug 29	Aug 30	Aug 31	Sep 1	Sep 2
Jer 16-18	Jer 19-21	Jer 22-24	Jer 25-27	Jer 28-30	Jer 31-32	Jer 33-35

and Acts in the Canela language. The government forced Jack to sign the document which allowed the distribution of the literacy materials but banned that of the translated Bibles. However he took both in two separate drums.

When the Canela people saw only one of the two drums open, they asked about another drum. Jack explained the situation and the elders discussed night long while Jack prayed. Early in the morning the chief came and asked him to pack both drums and leave. Jack was told to put them outside of the gate 35km away from the village; then the chief's son would pick them up. No violation of the agreement occurred as it was outside Canela territory.

Three years later, they had a surprise visit. One of the national translators working with them made a trip to come to them. For about a week, Jaco walked, took a rice transportation truck and a bus, and walked again on the way. After feeding him and hearing the news from the Canela village, Jack asked him if he could do some translation work together during his stay. He said OK and they started with prayer.

Jack finished his prayer opened his eyes but Jaco

just started 'his' prayer. Jack wept for Joy when he heard Jaco's prayer. That was for the first time Jack heard Canela people pray and knew there were Canela believers.

Jaco read Luke and Acts and one day he was asked in his heart that when he would obey what he had read. He went out and asked God's help.

"...'Great Father in the Sky, according to what I read in these papers, you are very good and I am very bad. Please do something for me."

Then ..." He(/God) adopted me into His family," Jaco said using the same expression that the Canelas used when they adopted Jack and Me into Canela families and we became fully functioning members of our new families and of the Canela culture. ...

Although for three years there had been no missionary, no preacher and no evangelist in the Canela village, God's Spirit had been at work. ... (pp.69-71, Pokes in the Rib, by Jo & Jack Popjes)

Let us pray that more nations would be adopted into God's family with the power of God's Word in their heart language!



Week 35 Prayer: Thank you, Lord! You are a Good Father! We know that You still desperately want to bring in those lost sons and daughters (nations) back into Your family. Help us to have your heart and contribute daily to this cause, so we are ready to welcome them when they hear Your Word in their own language and return.